(주)뉴프라임	대표이사 차경숙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김도현	삼광산업(주)	대표이사 하순기
(주)다음에너지	대표이사 이태형	(주)오성기업	대표이사 박찬순	신광전공(주)	대표이사 안호재
(주)동화수산	대표이사 박원동	(주)오토마	대표이사 김은광	아나식품	대표 김성열
(주)레전드힐스	대표이사 장광일	(주)원덕산업기계	대표이사 하종덕	아이크래프트(주)	대표이사 박우진
(주)리텍	대표이사 이종철	(주)위즈코트	대표이사 권오상	영락정밀판금	대표 곽영덕
(주)무창상사	대표이사 이무용	(주)제이패션	대표이사 고미화	오성산업(주)	대표이사 이광연
(주)빅트론닉스	대표이사 김근호	(주)진일텍푸라	대표이사 김성윤	제이에스앤후지비씨(주)	대표이사 민응식
(주)사라반도체	대표이사 황성호	(주)코텍세미컴	대표이사 홍철의	중앙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윤철
(주)새남소재	대표이사 이무섭	(주)한미이엔씨	대표이사 안두혁	철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재윤
(주)성진엠케이	대표이사 정완석	(주)휴코드	대표이사 김준영	탑텍	대표 권영주
(주)셀루스	대표이사 김지운	국제통신공업(주)	대표이사 김성조	한국정밀공업(주)	대표이사 박실재
(주)신한엘리베이타	대표이사 음한욱	비엔지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박우석	해오름(주)	대표이사 이규남

(무순)

브랜드 시대 가고 '품질의 시대' 온다

2015 중기품질경영대상 선정기업

회사명	대표	부문
국제통신공업㈜	김성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주)뉴프라임	차경숙	비닐백
(주)다음에너지	이태형	수소매연저감기
(주)동화수산	박원동	식자재유통
(주)레전드힐스	장광일	종합부동산서비스
(주)리텍	이종철	무선호출시스템
(주)무창상사	이무용	공구유통
비엔지테크놀로지㈜	박우석	수처리기기
(주)빅트론닉스	김근호	EMS
(주)사라반도체	황성호	스마트폰액세서리
삼광산업㈜	하순기	건축시공
(주)새남소재	이무섭	방습제
(주)성진엠케이	정완석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주)셀루스	김지운	화장품
신광전공(주)	안호재	방폭형전기기기
(주)신한엘리베이타	음한욱	승강기시스템
아나식품	김성열	절임식품
아이크래프트㈜	박우진	위조방지솔루션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김도현	부동산감정평가
영락정밀판금	곽영덕	정밀판금가공
(주)오성기업	박찬순	실리콘이형지
오성산업㈜	이광연	FRP성형
(주)오토마	김은광	자동벨브
(주)원덕산업기계	하종덕	새석파쇄설비
(주)위즈코트	권오상	OSP표면처리
제이에스앤후지비씨㈜	민응식	다이아몬드공구
(주)제이패션	고미화	패션닷신
중앙엔지니어링㈜	김윤철	냉난방설비
(주)진일텍푸라	김성윤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철인종합건설㈜	이재윤	종합건설
(주)코텍세미컴	홍철의	반도체유통
탑텍	권영주	클로스폴러기이드
한국정밀공업㈜	박실재	냉간단조기술
(주)한미이엔씨	안두혁	건식모래선별기
해오름㈜	이규남	수산물가공식품
(주)휴코드	김준영	생명공학기술

(가나다순)

중기품질경영대상 기업 36곳 선정

이타마르 시몬슨·엠마뉴엘 로젠 '절대가치' 저서에서 역설
"품질만이 불황기·똑똑한 소비자에 대응하는 '절대가치'"

KT경제경영연구소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신 경제 트렌드와 정보통신기술(ICT) 이해를 돕는 하계 추천도서를 소개했다. 올해는 KT경제경영연구소 전 연구원과 ICT 지식포털 디지에코(www.digieco.co.kr)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경제·경영과 ICT 융합 두 분야에 걸쳐 각 7권씩 총 14권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품질경영 분야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도서가 지난 5월 국내에 소개된 이타마르 시몬슨·엠마뉴엘 로젠의 '절대가치'(청림출판)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이타마르 시몬슨 교수와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 엠마뉴엘 로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존 마케팅 이론의 신봉자였다.

정보화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던 이들은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있던 마케팅 구름이 걷히는 모습을 보고 '절대가치'를 함께 썼다. 책을 통해 저자들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상대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바로 상대가치가 '브랜드'라면 이들이 주장하는 '절대가치'가 바로 '품질'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대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실제로 경험하는 '품질'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실제로 삼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내린 가치판단이다. 소비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에게서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말보다 이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품질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들의 공통점은 최근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보다는 기업 또는 제품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고객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고, 경기 불황 속 파고에서도 버티는 '내공'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품질경영의 대가인 에드워드 데밍의 품질경영 14개 원칙을 적용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1)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2)새로운 철학을 채택하라. 3)대량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제조 및 구매부서에는 사전에 마련된 품질척도의 통계적 근거를 요구하라. 4)납품업체를 결정할 때는 가격에 의존하지 말고 통계적 품질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단일업체로 정한 뒤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라. 5)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6)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업무에 현대적인 교육법을 사용하라. 7)품질향상은 곧 생산성증대를 가져온다. 리더십을 가르치고 함양하라. 8)조직 전반의 불안요인을 몰아내라. 9)각 부서스텝조직 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팀으로 일하게 하라. 10)수단 없이 생산성만 올리도록 강요하는 수치로 나타낸 목표와 슬로건은 제거하라. 11)목표할당량을 적은 작업표준을 제거하라. 12)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라. 13)자율학습을 고무하고 적극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라. 14)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실행서약을 명백히 정의하라. 직접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본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 '2015 중기품질경영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들의 성공 비결도 위에서 언급한 경영적인 기법 및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시킨 결과물이다. 그 기저에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이었음은 물론이다.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품질향상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실이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편집자주)

후원: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상공회의소

심사평

김근배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석사
펜실베니아대 박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현)

세계 경제는 지금 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호전되지 못하고,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기업들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제의 양극화가 가속화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경제발전의 견인차의 노릇을 지속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한해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경영철학과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실히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실한 노력을 알리고 그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한국일보가 2013년부터 '중소기업품질경영 대상'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의 선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록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들 품질경영 대상 중소기업들은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기술개발의 중요성 깨닫고 연구전담부서를 를 신설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R&D에 투자하는 기술개발 형 혁신기업이 많았다. 두 번째로 품질경영을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적 품질관리 체제를 갖춘 기업이었다. 경영자나 관리자만의 과업이 아닌 전 종업원의 참여를 끌어내는 조직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가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의 습관과 결별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고 꾸준히 추진하였다. 세 번째는 노사가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기업의 가장 귀중한 재산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노사가 하나가 되고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 애프터서비스 향상에 대한 고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선봉장인 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소를 불러 넣기를 기원한다. 품질경영의 선봉장들에게 격려와 아울러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

고속성장을 해온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면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성장이 정체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선진국이 되면 혁신과 자본수익률이 높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기업은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존립의 이유다. 이전에는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여 이를 싼 가격과 좋은 품질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모방할 제품이 없다는 점이다. 고객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동감을 통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한다. 그래야이제까지의 노력해온 품질경영도 더 빛을 보게 된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과 품질경영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린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린다.

완벽 원스톱서비스로 판금가공업계 선도

❖ 영락정밀판금

영락정밀판금(대표 곽영덕·사진)은 국내 판금가공업계를 선도해 온 대표기업이다. 1979년 설립해 랙, 시스템콘솔 데스크, 아케이드게임기, 콘트롤박스 등 각종 케이스류를 제작해왔다.

특히 방송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이 회사의 방송장비 관련 전 제품이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5년 갑류무역업 허가를 취득했고 1998년 국제품질규격인 ISO9002 인증을 받아 품질 경영체제를 확립했다.

영락정밀판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일체의 외주 없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설계부터 금형 제작, NCT·레이저·프레스가공, 조립, 도장, 인쇄까지 모든 공정이 포천 소재의 본사 공장 내에서 이뤄진다.

곽영덕 대표가 가장 공들였던 것 중 하나가 공장자동화시스템. 최첨단 자동화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 결과 모든 생산품의 표준화가 가능케 됐다.

균일한 품질 관리와 다품종 소량 생산은 물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 요인이다. 이와 함께 36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탄탄한 팀워크도 자랑거리다.

창업 당시부터 함께한 직원들을 비롯해 근무연수가 평균 20년이 넘는다. 외국인근로자 2명도 중간에 고국을 다녀왔지만 7년째 근무하고 있다. 또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만큼 고객사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곽 대표는 직원의 복리후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200평 부지 내에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복지관과 테니스장을 지었고 복지관에는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다.

곽영덕 대표는 "직원들과 거의 20년 넘게 같이 해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으로서 직원들이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평생 직장을 가꿔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